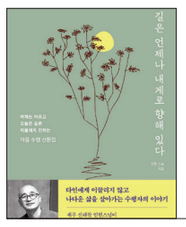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7~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딱돌 해설서	중암 선해	금빛소리
2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	7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종출판사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9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젠 토머스	모네정원
5	프리스틴 마인드	올걘 초왕 린포체	운주사	10	도해 화엄경	용수보살	부다가야

책세상

"홀로선 길이 곧 자신의 고향"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 있다
인현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 3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수행 산문집

'길 위의 스님' 인현 스님은 이 책에서 홀로 선 길이 곧 자신의 고향이라 선언한다. 길 위에서 고독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모양새를 어림잡았기에 그러했을까. 또 한평생 그 길을 그리워하겠노라 다짐한다. 그곳이 아직 닿지 못한, 가장 가까운 열반의 세계였기에 그러했을까.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서 부처의 마음은 더 환해지는 듯하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저자의 조용한 읊조림은, 사위를 가라앉히는 바람 소리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준다. 외로움을 벗 삼은 자신을 만나게 해준다. 그의 발걸음을 뒤따르는 것이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좋은 방법임을 쉬이 눈치챌 수 있다.

자연의 무심함서 발견한 부드러운 위안

아픈 사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있었지만, 아픔이 깃드는 곳은 조금씩 다양해지는 듯하다. 발전하고 개인화된 사회의 모습을 닮는지, 아픔도 제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신체 질환은 의학의 발달로 치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른다. 대처법을 모르는 탓이다. 고통을 벗어나는 일이 쉬웠다면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리라.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에게 이 책은 사계절이 머무르는 숲처럼 쉴 곳을 내어준다. 때로는 숲속에 부는 청량한 바람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문장 곳곳에서 새가 울고, 초록 그늘이 너울지고, 겨울 밭이 코를 곤다. 무심한 자연물을 단독자로서 고독히 맞이할 때의 순간처럼, 고통은 머리칼을 흩트리는 바람처럼 씻겨나간다. 자연에서의 발견이 당신의 마음을 한결 부드러이 만든다.

고독해서 맑고 아름다운 길

"길의 끝은 내가 멈춰선 곳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을 모른다면 아무리 먼 여행을 한다 하여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결국 제자리인 것입니다."

〈햇살 한 줌에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中에서

이 책의 화두는 '길'이다. 저자는 이를 다루며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그 길에서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고독을 만나기 위해 길을 걸으며 고독을 향해 내처 걷는 발걸음이 곧 자신의 숙명임을 이해한다. 삶이 곧 멈추지 않는 수행임을 일찍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내가 길을 향해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에게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 그래서 바람의 길이 오고 구름의 길이 오고 사계절 꽃들의 길을 깨닫는 것. 그것을 저자는 '쉼'이라고 명명한다. 고독에서부터 참된 휴식과 새로운 성찰을 길어내는 저자의 문장은 책 속에 어렵지 않게 새겨져 있다.

"진정한 쉼은 길 위에 있습니다. 걸음을 옮겨 길 위에 설 때는 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걷기만 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분주히 떠돌던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길이 벗이 될 때쯤이면 고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성찰이란 고독의 불빛입니다."

〈길은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中에서

매 순간 누구나 부처였음을

제주도 선흘리의 깊고 한적한 들판에 '선래왓'이라는 아름다운 현대식 사찰이 있다. '선래(善來)'는 손님을 맞이하는 말로,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을 품는다. 불교에 처음 귀의한 사람에게 부처가 한 말이기도 하다. '왓'은 제주어로 '밭'을 의미하는데, '앙코르와트'의 '와트'처럼 사원을 뜻하는 다의어로 사용한다. 이름처럼 따뜻한 공간에서 길러낸 사유가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을 수 없겠다.

아주 어렸을 적 출가한 인현 스님은 다양한 절에서 공부하고, 해외의 명상 센터에서 수행하며 걸망을 짊어지고 오랫동안 길을 걸었다. 제주에 정착한 뒤 20년간 한국 및 제주 불교사를 공부하고 정리하며, 오랫동안 세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행해왔다. 고요한 평화를 닮은 말씀은 오랜 수행의 결과물로써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에서 접할 수 없는 호젓한 오솔길을 열어주고 있다.

"시린 겨울의 찬바람도 이처럼 따사로운 봄날이 되면 설렘의 바람이 되듯이 스스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돌리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은인이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봄바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수, 경칩이 이제 봄임을 알립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바로 봄임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를 떠나왔듯 오늘을 떠나려 합니다. 참회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길로……."

〈이제 자신이 봄임을…〉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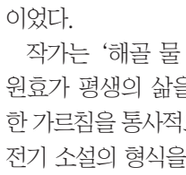
짧은 경어체로 이어지는 스님의 잠언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겸허하다. 자연들을 오래 응시하며 쓴 간결한 글들은 맑으며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선한 울림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평안과 건강한 마음, 그리고 오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경어체로 이어지는 스님의 잠언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겸허
오랜수행 결과물 오롯이 책에담아
해외명상센터 등서 오랫동안 수행

▲저자 **인현 스님**은?

어린 시절 제주 어촌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했다. 합천 해인사의 강원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이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동 쌍계사, 금정 범어사, 미얀마 마하시 명상 센터 등에서 수행했다. 인연이 닿아 해인사, 법주사 승가대학의 강의를 맡았다. 현재 제주 오름의 길목 선래왓 도량에서 정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골 물서 원효 나오게 하고싶어"



소설 원효
이지현 지음
불광 펴냄/1만 5천원

1,400여 년 전 원효의 마음

간밤에 달게 마신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이른바 '해골 물' 일화로 잘 알려진 원효 대사. 그런데 이 일화가 뜻하는 바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헌법학자인 이지현 작가는 원효의 〈판비량론〉을 탐독한 뒤 충격을 받았다. 이 책은 원효가 당대 유명한 고승 현장 법사의 논리를 비판하며, 인간의 심신을 치밀한 논증 방식으로 파헤친 것이다. 책을 읽은 뒤 원효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승가서 속세로, 지아비이자 자식을 낳은 평범한 거사로, 거지들 속으로 들어간 원효의 파계가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법학자로서 바라본 원효는 만법의 이치, 즉 깨달음과 실천이 한 치 어긋남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작가는 '해골 물 일화'에서 벗어나, 원효가 평생의 삶을 통해 전파하고자 한 가르침을 통사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전기 소설의 형식을 빌렸다. 원효의 저서와 논문, 설화 등 각종 문헌을 섭렵해 역사적 사실을 줄기로 삼되, 원효의 삶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당대 역사와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채웠다. 삼장 법사와 손오공, 용왕과 용, 살아 있는 시체들, 요석과 의상 대사, 당 태종, 문무왕 등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엮여, 마치 1,400여 년 전 서라벌 땅으로 되돌아간 듯 거대한 판타지로 펼쳐진다.

어쩌면 원효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 땅에 마음껏 펼치고 사라진 것인지 모른다. 1,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책은 원효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원효는 왜 거지들 속으로 들어갔을까?

일본 교토 고잔지(高山寺)에는 13세기에 그려진 원효의 가장 오래된 초상화가 남아 있다. 다듬지 않은 거친 수염과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은 원효가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짐작케 한다.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로, 여러 종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불교 사상을 통합한 사상가로, 만법의 이치를 깨친 수행자로, 저잣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철저한 실천가로 살다간 원효. 그는 이론과 실천이 완벽히 들어맞는 성현이었다. 원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원효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원효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저 유명한 해골 속, 수행자와 범부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중생은 구제와 교화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며 자유와 해탈로 함께 가고자 하는 스승이자 도반이었다. 이 맥락에서 원효는 파계는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단지 원효의 파계와 요석과의 혼인 등 파격 행보만을 가리켜 비난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원효는 생의 모든 순간을 향상(向上)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다. 원효가 떠난 지 1,400여 년이 지난 오늘, 원효를 읽는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를 알아내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 원효가 온 삶을 통해 보여준 바로 그 자리를 '쉽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써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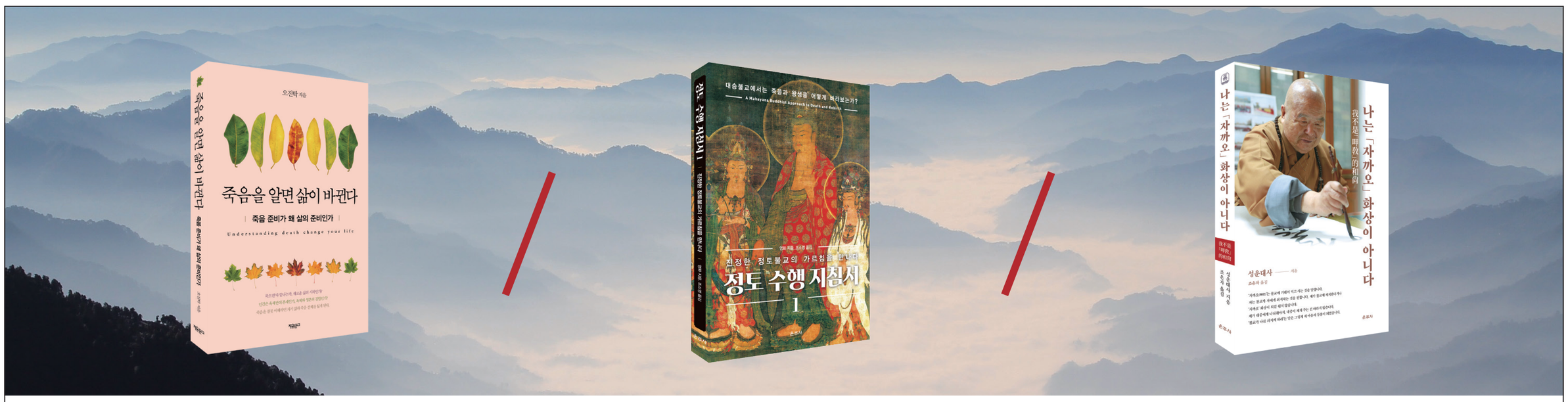
난해한 한자어로 얽히고설킨 논리를 좇느라 생긴 두통과 함께 읽어낸 〈판비량론〉, 이어서 원효의 저술과 사료, 전기, 소설, 논문 등 온갖 자료를 섭렵하는 동안 작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거지들과 함께 울고 웃는 원효, 저술에 매달리며 밤을 새우는 원효, 전쟁터에서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원효, 그리고 그런 원효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요석의 애달픈 목소리를 들었다. 설렘과 감동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소설 원효〉이다. 김주일 기자

법학자 출신 작가가 본 '원효'
"깨달음과 파계는 같은 자리"
마음 어떻게 쓸지 화두던져

▲저자 **이지현**은?

법학박사이며 헌법학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단체와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불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불교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오랜 꿈을 일깨웠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판비량론〉을 읽은 뒤 원효의 삶을 소설로 그려내기에 이르렀다. 무엇에도 걸림 없는, 원효의 무애(無碍)와 일심(一心) 사상이 한 마음과 한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다. 쓴 저서로는 역사 인물 허균을 다룬 〈400년 만의 만남–그리운 허균 당신에게 보냅니다〉 청소년 법 교양서인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등이 있다.



웃으면서 떠나야 진짜 행복한 삶이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진탁 지음/국판/376쪽/값 18,000원/자유문고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